

정보화의 역기능에



포스데이타 대표이사 장 문 현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행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다. 이 용어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넷맹, 즉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자칭하는 은어가 생길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산업분야의 용어가 단기간내에 사회언어로 정착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정보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록 산업화에서는 선진국에 뒤졌으나 정보화에서는 앞서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정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즉 60,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공해나 인구, 교통문제, 황금만능주의 만연, 인간소외 등 생각치도 못했던 많은 문제점을 낳은것과 같이 정보화사회 추진과정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특히 최근들어 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신종범죄와 이에 대한 범죄의식의 결여, 음란물과 같은 잘못된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및 종속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소외계층 대두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언뜻 보기에는 일과성의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학생이 일본 외무성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해 정보를 지우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만일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는 외교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것은 단순히 일본이 미워서 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학생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와, 우리사회의 정보 윤리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산업화가 그랬듯이 정보화의 역기능이 정보화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우리는 산업화가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보 보안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보 보안기술의 경우 다른 정보기술에 비해 그 발달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그동안 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

적극적으로 대비하자

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담당할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사회가 거는 기대 또한 자못 크다.

여기서 한가지 바라는 것은 관련 기술과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동안 산·학·연으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결과들을 센터를 중심으로 정리, 공유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있던 정보보호관련 기술의 발전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 정보보안기관과 일반기업, 관권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보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차원의 정보시스템 감사체계를 수립하여 시스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정보보안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인 정보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 교육의 경우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도태되기 쉽다.

일례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다수가 사용하던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바뀌더니 또 다시 윈도우 '95로 변했으며, PC통신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이 등장,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떠한 형태의 기술이 등장할 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여기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우선 학교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이미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성인층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이 앞장서 이들을 위한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제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개인 신상정보의 외부유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정보의 불법유통 등은 모두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즉, 우리사회의 의식수준이 정보기술의 발전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순기능만을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화의 관심은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고성능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